

포르노 중독자의 부부치료

박태영*

1. 서론

이 사례는 포르노 중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인 남편을 부인이 치료사에게 의뢰한 사례이다. 남편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었고, 매사에 자신이 없었으며, 자신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면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부부는 결혼생활 10년째이며, 슬하에 2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다.

남편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문제아였으며, 특히 중학교 때에는 가출한 경험이 몇 번 있었다. 또한 남편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4명의 누나와 함께 동거하였다. 어머니는 장사를 하느라 자식을 돌볼 시간이 없었고, 어머니는 부족한 어머니의 역할로 인하여 아들이 원하는 것을 돈으로 보상하였다. 어머니는 막내인 아들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였는데 그것이 아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머니의 잔소리를 힘들어했다. 한편, 남편은 집안에서 누나들과 대화가 되지 않아, 어렸을 때부터 늘 집 밖으로 걸돌았다. 그러한 가운데 남편은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었으며, 이러한 의사소통 문제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남편은 청년기 때 알코올중독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군대에 있을 때는 마약을 복용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젊었을 때는 여자와 성 관계도 경험하였다. 남편은

*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조교수.

부인과 결혼하기 전에 동거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 여자는 술집에 나갔으며, 현재의 부인에 비하여 외모가 나은 편이라고 생각하였고, 성 관계도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10년 전에 영적 체험을 하여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으며, 그러한 연유로 주위에서 현재의 부인이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자로서, 사모감으로 적당하다고 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 부부는 신혼 초부터 대화가 안되었으며, 1년에 3~4차례 정도의 성 관계를 하였다. 특히, 남편은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인과의 잦은 성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부인과 잦은 성 관계를 갖게 된다면 부인의 성적 욕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였다. 한편으로, 부인은 성 관계를 할 때마다 정상체위 만을 고집하여 남편은 성적인 만족을 느끼지 못하였다. 이러한 성적인 불만과 더불어 매우 적은 횟수의 성교로 인하여 남편은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는 포르노에 중독이 되었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두 사람간의 관계에 근본적으로 의사소통이 안됨으로 인하여 두 사람은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잦은 싸움을 해왔고, 또한 시댁의 잦은 간섭으로 인하여 부부는 더욱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한 결과로 부인은 결혼하기 전에 앓았던 심장병이 재발하게 되어 수술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도 심장 및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2. 문제점 및 치료목표

1) 문제점

이 부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남편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머니와 시댁식구로부터 분리가 되지 못하였고, 이러한 남편의 원가족과의 미분화로 인하여 부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특히 부인은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시어머니의 잦은 간섭으로 인하여 시어머니 및 시댁식구들과 부부간의 하위체계간에 명확한 경계선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였다.

둘째, 남편은 부인과 의사소통이 전혀 안되었다. 이러한 배경 뒤에는 남편은 어려서부터 원가족과 대화를 나눌 수 없었으며, 따라서 대화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 이러한 경험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부부관계에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부인의 경우도 어려서 가족과의 대화가 없었으며, 5명의 자녀 가운데 셋째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서러움을 경험하면서 생활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

표현을 가족에게 별로 해보지 않고 살아왔다.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표현 해야하는가에 대하여 어려서부터 학습이 되지 않았다.

셋째, 가족생활주기에서 어린 자녀를 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남편과 아빠로서의 미흡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흡한 역할이 부인을 힘들게 하였고, 자녀와 불편한 관계를 맺게 하였다. 남편은 원가족에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모델링이 없이 성장하였다. 이러한 가정의 영향이 가족생활 주기상 신혼부부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 역할조정에 대한 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부부생활을 해오고 있었다. 부인은 남편에 비하여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지나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러한 부인의 지나친 역할로 인하여 남편은 힘들어 하는 역학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2) 치료목표

첫째, 남편을 시어머니와 누나들로부터 분화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남편과 시어머니와 자아분화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분화를 위하여 시대식구들로부터 명확한 부부하위 체계를 설정하도록 한다.

둘째, 부부가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해왔던 역기능적인 해결방식을 발견하여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시도한다.

셋째, 가족 생활주기상 남편을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하도록 하고, 그와 동시에 부인을 자녀로부터 분리하게 한다. 자녀와의 분리로 인하여 부인은 외부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자유로움과 더불어 에너지를 얻어 올 수 있도록 한다.

3. 치료모델

치료자가 클라이언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사용된 치료모델로서 MRI의 상호작용적 가족치료(Interactional Family Therapy) 모델과 부인의 어머니로부터의 미분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Murray Bowen의 가족체계이론(Family Systems Theory)을 활용하였다.

1) MRI(Mental Research Institute)의 상호작용적 가족치료 모델

MRI집단은 의사소통과 체계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나는 증상에 초점을 맞춘 단기치료접근법이다. 의사소통과 체계이론의 시각에서, 문제의 기원은 이미 정신 내부적으로 추구되어지지 않았고,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 안에 있었다. 해결책은 바로 의사소통 안에서 찾았다. MRI집단은 클라이언트들에 의하여 보고되는 증상들이 더 근원적인 병리라고 보기보다는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Schlanger & Anger-Diaz, 1999). 치료의 목적은 클라이언트가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제시하고 있는 불평을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Shoham et al., 1995). MRI 집단은 Watzlawick과 그의 동료들에 의하여 개발된 상호작용적 치료의 이론적 토대에 기여를 하였다. 이 접근법은 수많은 문제를 다루는 실제적인 치료모델이며(박인철 역, 1995; Watzlawick et al., 1974; Weakland et al., 1974),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병리적인 시각으로 설명하는 것을 지양하고 클라이언트의 불평과 변화를 위한 목표의 두 가지 측면에서 클라이언트 중심의 치료 방식을 사용한다(Duncan et al., 1992). MRI 단기치료모델은 현재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며, 문제와 변화에 대하여 두 가지의 상호연결된 가정에 입각해 있다. 문제의 기원과 원인과는 상관없이, 만일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가 상호작용 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문제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들이 심리치료사에게 가지고 오는 문제들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다. 반면에, 만일 문제를 유지시키는 행동이 적절하게 변화되거나 제거되어질 때 그 문제의 성질이나 기원, 혹은 기간에 상관없이 그 문제는 해결되거나 사라질 것이다(Weakland et al., 1974). MRI집단은 문제 상황에 둘러싸여 있는 상호작용을 면밀히 연구하고, 상호작용에 있어서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하여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을 결정하는 것에 의하여 치료를 발전시켜왔다. 또한 MRI집단은 많은 치료적인 사례들에서 변화된 행동이 상호작용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상호작용이 개념과 결과를 변화시킨다는 증거를 제공해 왔다(Schlanger & Anger-Diaz, 1999). 따라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 MRI의 상호작용적 가족치료 모델은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다.

MRI 집단에 따르면, 가족의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족의 시도에 의해 오히려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MRI 집단은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상호작용의 과정을 강조하고 일반적인 시각에서 모든 행동은 사회체계 내에서 더 폭넓게 진행되는 의사소통의 교류 가운데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Duncan et al., 1992). MRI 집단은 인간은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발달시키는 것으로 본다. 첫째, 어려움을 잘못 다루는 것이다. 둘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패와 똑같은 문제해결방식의 계속적인 적용이다(Watzlawick et al., 1974). MRI모델은 '문제'란 오랫동안 그 문제를 변화시키려고 계속해 온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러한 문제행동들이 지속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사람들이 그 문제행동들을 변화시키려고 행하여 왔던 방법, 즉 사람들의 '시도된 해결'에 있다고 본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감소시키려고 시도해 온 해결책이 종종 문제를 유지시키거나 혹은 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기까지 한다(Goldenberg와 Goldenberg, 2000). 따라서 치료자의 일차적인 임무는 새로운 또는 다른 행동을 기존의 행동과 대체하거나, 본래의 문제행동을 '하찮은 문제'로 재평가하는 것에 의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지금까지 시도해 온 해결책을 소개하는 것이다(Weakland, 1993). 또한 문제를 유지시켜 왔던 차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MRI 모델에서는 가족들에게 상식과는 반대되는 일들을 하게 하거나 혹은 믿을 수 있도록 하게 한다(Nichols, & Schwartz, 2001).

MRI 모델의 치료 초점은 해결책에 있고, 치료의 중심 된 과업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제안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행동적인 용어로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묘사를 얻는 것이다. 둘째, 모든 시도된 해결책의 공통의 특징과 중요한 취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셋째, 클라이언트가 말로나 행동으로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을 하도록 치료자의 영향력을 사용하는 것이다(Schlanger & Anger-Diaz, 1999).

본 사례에서는 남편이 신혼 초부터 부인과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없었고, 이러한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없었던 배경에는 남편이 어려서부터 원가족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 해보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었다. 남편은 초등학교 때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고, 4명의 누나 밑에서 대화를 하지 못하면서 생활해왔다.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이 찍혀 퇴학당할 뻔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는 막내아들을 지나치게 과잉보호하여 자식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무능한 남편으로 인하여 부인은 본의 아니게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고, 부인의 무시하는 태도로 인하여 남편은 상처를 받았고, 부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경우에는 폭행을 하였다. 즉, 이 부부는 남편의 무능력함에 대하여 부인이 무시하는 표정으로 대처하고 다시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남편은 부인의 태도와 표정에 더욱 화가 나 부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언어 및 신체적인 폭행을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패턴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 부부가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 왔던 역기능적인 문제 해결방식이었다. 즉, 배우자와 대화를 할 수 없었던 남편과 부인의 의사소통 표현방식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두 사람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치료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왔던 역기능적인 방식을 찾아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하였다.

2) Murray Bowen의 가족체계 치료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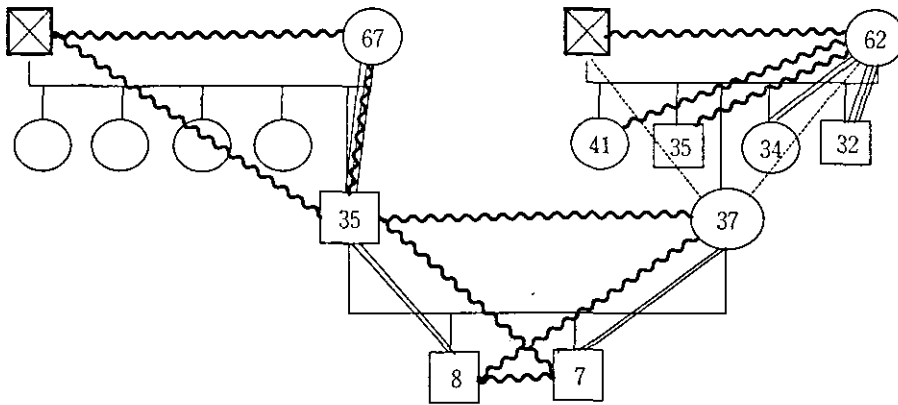
가족체계 치료모델에서는 가족 구성원들 간에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써 가족문제들을 파악한다. Bowen은 부모 특히 어머니와 자녀사이의 미분화된 정서적 관계를 중시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가족투사 과정을 통해서 전수된다고 보았다. 또한 치료목표로 미분화된 가족자아집합체로부터 분화되는 것에 두었다(Friedman, 1991; Goldenberg & Goldenberg, 2000; Papero, 1995). 특히 자아분화가 낮을수록 삼각관계 형태는 심하고 관계가 중요할수록 그 형태가 강하다. 두 사람의 정서체계는 긴장이 없을 때는 안정되지만 불안이 증가하면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인간관계의 갈등과 불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제 3자와의 의존적 관계(융합)를 통해 불안을 극복하려 하고 이 불안한 부부정서관계에 자녀를 끌어들이어 속죄양을 만들기도 한다. Bowen은 삼각관계를 가장 불완전한 관계체계로 보았고, 삼각관계가 일시적으로 불안이나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오히려 가족의 정서체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여 증상을 나타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Goldenberg & Goldenberg, 2000).

한편, 관계의 패턴은 세대들을 넘어 학습되고 전수되는 것으로써 간주되며, 현재 상호작용하는 패턴들에 영향을 준다(Harvey & Bray, 1991). 더욱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관계하는 방식은 다른 가족성원들에 의해 가족 내에 강화와 모델링을 통하여 세분화되고 규정된다. 게다가, 그 가족구성원들의 영향은 그 가족들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또는 가족원들과의 접촉 없이도 지속된다. 따라서, 사정과 개입은 가족구성원들과 세대들 내에서 그리고 가족구성원들과 세대들 간에 상호관계에 초점을 둔다(Lawson, 1999).

이 사례에서 남편은 홀어머니의 그늘 밑에서 늘 과잉보호를 받아왔고, 현재까지 어머니와 누나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며 살아오고 있다. 특히 어머니는 아들과 지나친 밀착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아들의 일에 대하여 사사건건 참견과 잔소리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자의 미분화로 인하여 부인은 남편과의 관계가 더욱 힘들었고, 결론적으로 남편에 대하여 간섭을 하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남편을 무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남편을 부인과 함께 협력하여 시어머니로부터 분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부부하위체계를 강화시키며, 그 과정으로서 시댁식구들과의 명확한 경계선을 긋도록 하였다.

4. 치료과정

〈그림 1〉 가계도



본 사례의 상담 기간은 2001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10회로 이루어졌다.

제 1 회 (2001년 5월 28일)

T : 저를 찾아오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W :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도 늘 매사에 자신이 없고 음란에 대한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무엇을 하고 싶기는 한데 정작 생각만 있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용납을 못하고 죄책감에눌려 있으세요. 그리고 성적인 것이라고 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 속에 자리 잡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세요. 제가 옆에서 봐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공감이 되고 그래요.

H : 제가 최근에 대전에 갔다가 호기심에 끌려 TV 화상데이트라는 것을 해봤어요. 거기서 은밀한 대화가 나뉘었지만 순간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가족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뭐하고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와서 그냥 나왔어요. 또 최근에 목회 설교 자료를 뽑으려고 인터넷을 설치했지만 자꾸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어서 결국은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제가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본드, 약물 등을 흡입했었어요. 그리고 군 생활 동안에도 부탄가스 같은 것을 흡입하고 제대 후에는 약물과

술 중독에 빠져 있었죠. 그 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체험을 하고 나서 그런 것을 끊게 되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의 제 증상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궁금해요.

T : 더 들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저는 부부문제와 원가족 문제를 보고, 초점은 사모님과 목사님의 부부관계에 둘 것입니다. 사모님께서서는 이러한 목사님의 결혼 전의 생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나요?

W : 네, 다 알아요.

H : 그건 제가 말했지요. 성령체험 하고 난 직후에는 음란한 생각이 크게 없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서도 음란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지나가는 여자들만 봐도 음란한 상상이 되니깐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음란한 생각을 쫓기 위해 집회도 다니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금식도 하고, 물리 치료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모가 상담을 받아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상담은 인간적인 방법인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사모가 이야기하고 책도 보고하니깐 상담이 꼭 인간적인 방법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T : 음란한 생각의 정도가 어느 정도 세요?

H : 사실 지나가는 여자들만 봐도 그렇고,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 딸이 나 처제가 스치고 지나가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나는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주님을 믿고 목사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나는 인간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스스로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T : 두 분의 부부 관계는 어떠세요?

H : 늘 싸우면서 생활을 하지요. 같이 잠도 잘 안 잤습니다. 저는 부부관계를 갖는 것조차 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관계를 가지면서 옛날에 음란했던 성생활들이 죄책감으로 떠오르고 '또 다시 내가 성적으로 깊이 빠져 죄악 속으로 빠져 버리면 어떻게 하나?' 라는 두려움이 드니깐 거의 잠자리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신앙 관으로 인하여 성(性)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어 있으며, 이러한 왜곡이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T : 참고 삼아 여쭙보는 것인데요 목사님은 자위행위를 하세요?

H : 최근에 와서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을 때는 사모 없을 때 성인 사이트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풀곤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T : 사모님하고는 왜 관계를 안 가지셨나요?

W :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일단 감정적으로 많이 연합되지 못했어요. 결혼 초부터 얼마 전까지는 정말 소 닭 보듯 너무 앙숙 이었어요. 서로 감정적인 부분에서 미워했던 부분이 많았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 좋아하는 감정 같은 것은 둘 다 전혀 없었거든요.

H : 일종의 사명 같은 것으로 결혼했지요.

T : 어떤 사명이요?

H : 저는 그 당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지만 목회자의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헤어져야 됐어요. 제가 사랑했던 여자는 술집 아가씨였거든요. 주위에서도 '너는 목회자의 길을 가야하는데 그 여자는 사모 감이 아니다'라고 자꾸 헤어지라고 권유했고 저 또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하는데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다 보니 하기도 싫은 결혼을 억지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깐 서로가 미워하면서 더 부부관계를 안가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 사명만 아니었으면 당신하고 결혼할 필요가 없었다' 하면서 매일 싸웠죠. 이 사람도 마한가지고요(문제를 악화시켜왔던 역기능적인 시도된 해결방식).

T : 지금은요?

H : 지금도 조금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많이 바뀌었지요.

T : 그럼 결혼 초부터 대화가 안됐겠네요.

H : 아주 안되었죠. 최근에 와서야 좀 대화가 되요.

T : 어떻게 해서 대화가 되기 시작하셨습니까?

W : 제가 올해 3월초 사모대학에 다니면서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목사님을 미워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항상 이 사람하고 헤어지거나 도망가고 싶은 생각 뿐이었어요. 나중에는 그래도 어차피 살아야 하니깐 이해를 해줘야지 하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그런데 사모 세미나 갔다오고 수련회를 갔다오면서 제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T : 목사님의 폭행은요?

W : 거의 없어요. 처음 신혼 때 제가 말실수를 해서 한 대 맞은 적은 있어요.

H : 제가 얼마 전에 폭행을 심하게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성도의 수원구치소 면회를 다녀오는 길에 사모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순간 이성을 잃고 길거리에서 폭행을 했어요.

T :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주세요.

W : '당신 항상 그래! 그러면 그렇지!' 아니면 꼭 그렇게 말은 안 해도 그런 분위기와 눈빛, 행동이죠(역기능적으로 시도해 온 문제 해결방식).

H : 그 말을 듣자 순간 '아직도 나를 옛날 그런 감정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절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성을 다 잃어버리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폭행을 했죠. 그것 때문에 이혼하자고 그랬다(역기능적으로 시도된 문제 해결방식)가 시간이 좀 지나니깐 안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막 사정하고...

W : 일종의 그런 거죠. 목사님은 '당신은 원래 그래!'라는 말을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목사님이 실수했거나 잘못했던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남편으로써는 상관은 없지만 목회자로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충족시켜야 하는 모습이 합당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어떤 것을 요구를 할 때 들어줘야 될 것들은 반대 없이 한 번에 다 들어주고 아니 다 싶은 것은 목사님이 다 뒤집어 봐도 안 들어줬어요. '당신이 옳지 않더라도 어머니나 누님들은 무조건 다 들어줬으니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고집스러운 생각 때문에 많이 안 들어 준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많이 자존심을 상하셨나봐요. 그리고 또 같이 잠자리하는 문제도 저는 안자는 것이 더 편했고, 저도 감정적으로 싫으니깐 그랬던 거죠.

H : 저는 '지금까지 제 주위의 여자들은 나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고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을 더 증오했고 미워했어요.

위의 대화에서 두 부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왔던 방식이 서로를 변화시킬 수 없었고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는 역기능적으로 시도해 온 문제 해결방식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T : 그러면 사모님, 목사님 입장에서 성적욕구가 해결이 안되면 그것이 어떻게 풀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세요?

W : 처음에는 비디오를 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니깐 절제하려고 하면서 끊더라고요.

H : 안 봤지만 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지요.

W :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다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정말 수치스러운 부분은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결혼 초부터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다'고 많은 부분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결혼 초에는 다른 사모님들로부터 '목사님의 성적욕구를 나름대로 풀어줘야 하고 같이 관계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정말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어요. '하나가 되야 하고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구요.

H : 제가 그 소리 들었을 때 '당신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하나? 어떻게 하나님을 회롱할 수 있냐?' 라며 말했죠.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영적인 은사를 받으시고 금식하시는 분들이라서 저도 항상 그쪽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금식으로 육을 죽이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때마다 더 안되고 실패로 들어갔을 때 죄책감이 컸어요.

T : 정상적인 남자라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성적 욕구를 참기 힘들어요. 그게 정상이죠.

H : 그런데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도 '너는 목회자로서 이미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 되었다'라고 말할까봐 못 물어 보겠더라구요. 저는 목회자들은 성적으로 초월했다고 생각해왔거든요.

T : 사모님은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W : 저는 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놀려 사시니깐 제가 어떻게 그래요? 목사님이 신혼 초부터 하는 소리가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깐 저도 그렇게 성에 빠질까봐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요즘 가끔 목사님이 '하고 싶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 장난 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저도 여자인데 정말 이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목사님이 너무 죄책감을 느끼니깐 말을 못 하겠어요.

H : 근데 저는 아내는 성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이란 생각이 드니깐요. 이 사람은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성에 빠져 들어가면 기도 생활도 못하고 그럴까봐 생각은 있어도 그런 것들 때문에 거리를 두었죠. 대신 저는 늘 생각에서 즐기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보면 완전히 수면에 빠지는 것도 아닌데 여성의 나체하고 실제로 성 관계를 갖는 화면이 그려지고 그런 것이 참 많아요.

T : 지금 성적욕구가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눌러왔어요. 하지만 성적 욕구를 분출 못했는데 어떻게 참아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어렸을 때 소설책을 보면서 성적욕구가 차면 계속해서 야한 장면만 찾아서 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정상이죠.

H : 저도 신앙 생활하기 전에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앙 생

할 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것이 정상이란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클라이언트의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사실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앙 생활하면서 더 억압 받고 고통받고 있어요. 제가 평신도였다면 덜했겠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죄책감에 눌리고 있어요.

T :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께서 목회자가 되시고 나서 성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산다고 하시는데 인간의 성욕이란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된다고 해서 성욕이 없어지나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W : 그런 이야기를 예전부터 목사님께 했어요.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늘 성 관계를 가질 때 제 마음속으로 '예전에 다른 여자들하고는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내가 만족해 주지 못해서 목사님이 더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T : 아마 두분 간에 의사소통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목사라는 신분으로 인해 성을 더 죄악시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저는 성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히 자유 해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목사가 어디 있고 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지극히 원초적인 동물로 가서 즐기는 것인데요. 부부관계에서 만족스러움을 느끼고 또 다른 에너지를 받아 나오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안되니깐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되고 찾게 되는 거죠. 두 분이 성 관계를 하면서 즐기세요?

H : 저는 못 즐기죠. 저는 성 관계를 갖으면서도 죄책감 때문에 불안하고 또 사모가 소리내고 좋아하는 걸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저 사람이 맞들어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렇게 즐기자고 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W : 그러면 그 모습에 저도 성욕이 감퇴해 버리죠.

T : 목사님, 그것이 뭐냐면요 목사님께서서는 성에 대해서 굴레에 씌워 있고 또 규칙에 엄격하다는 거예요. 다음 중에는 목사님 원가족을 봐야겠네요.

제 2 회(2001년 6월 4일)

T : 지난번에 다녀가시고 나서 사모님하고 어떠셨어요?

H : 확실히 모르겠지만 마음의 문이 많이 열린 것 같고 마음속으로 달라짐을 느껴요. (지난주의 상담으로 인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두려움도 와요.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신앙적으로 기도해도 안됐는데 내가 잘못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하

는 두려움이 오더라구요(변화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

T : 상담하다보면 어떤 분들은 부드럽게 변화가 오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항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그 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가치관과 철학, 신념, 믿음과 대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뿌리가 막 흔들리기 때문이죠. 목사님도 그런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H : 저도 상담 받고 나서 갑자기 좋아진 것 같아 스스로가 의아하고 사모한테 '이상하다, 이상하다, 예전 같으면 이러지 않을텐데...'라고 자주 말했어요.

T : 사모님과 성 관계를 하셨어요?

H : 네

T : 어떠셨어요?

H : 편안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되니깐 당황되기도 하고 또 뭔가 모르게 두려움이 오더라구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서 뭔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아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 중인데 좀 늦게 들어오거나 하면 막 화를 냈어요. 근데 이제는 통화하는 가운데 아내가 좀 늦게 들어온다고 하면 '좀 빨리 오지' 하다가 아니지 하면서 '밥 먹었냐'고 물어보게 되고 '애들은 내가 볼 테니깐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들어오라'고 말하게 되니깐 내 자신이 자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신앙으로 금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 상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난번의 상담으로 인하여 부부가 편안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대화하는 방식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남편이 부인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에 그 전에는 화를 내거나 '좀 빨리 오지'라고 하였는데(역기능적으로 시도된 해결방식), 지금은 '애들은 내가 볼 테니깐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들어와'라는 새로운 해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T : 목사님 지난 번 상담 이후로 사모님과 성 관계는 몇 차례 하셨어요?

H : 결혼해서 처음으로 일주일에 3번이나 했죠(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그런 기도를 처음 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 부부가 이 성 관계를 통해서 마음도 하나요 육체도 하나요 영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서로가 만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T : 사모님도 만족스러우셨겠네요.

H : 사모는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죠. 제도 그랬어요. 예배 끝나고 바람을 쐬러 나갔다 왔는데요 사모의 얼굴 화색이 많이 바뀌었더라구요 '사랑하면 이렇게 얼굴도 많이 좋아지

나 보다. 당신 얼굴이 밝아졌다'고 했더니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성교를 했었죠. 결혼해서 일주일에 3번 한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죄책감 없이 편안하게 한 것도 처음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클라이언트의 놀라운 변화와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사이에서 양가 감정이 나타나고 있다.

T : 그것을 빠져 들어간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모님과 부부관계가 더욱더 좋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빠져든다는 것은 부정적이잖아요. '빠져든다'라는 말속에는 '무엇에 중독되고 탐닉한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것은 중독이 아니고 사모님과 관계가 사랑으로서 엮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포르노 사이트 들어간 것은 어떠셨어요?

H : 자료 검색을 하러 PC방에 들어갔다가 순간 접속을 했어요. 하지만 얼른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뚫어오르니깐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함께 관계를 갖고 하니깐 해소가 되더라고요.

T : 성적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만큼 에너지가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원가족 관계를 이야기 해 주시죠. 어머님 아버님의 부부관계는 어떠셨나요?

H : 굉장히 안 좋았죠. 늘 아버님께서 술 드시고 오시면 싸우셨던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러면 저희 가족들은 다 피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다락으로 숨었던 기억이 많습시다. 심지어 나중에는 제가 너무 속을 썩이니깐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영정사진을 태우시면서 '네 아버지 영이 들어와서 너를 괴롭힌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슬픈 것도 있지만 늘 '잘 죽었다' 그런 말씀도 하셨죠.

T :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목사님은요?

H : 저는요, 어머니만큼은 아니지만 아버님이 술 드시고 하시는 것이 창피하고 해서 조금은 해방감을 느꼈죠.

T : 목사님하고 어머님 관계는 어떠세요?

H : 어머님께서 저한테 집착이 굉장히 강하시고, 간섭도 많이 하시죠.(클라이언트 어머니의 자아분화가 안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어머니는 나한테 잘해주시지만 저는 그런 것이 싫었죠. 옛날에는 어머니가 야채가게 하시면서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세요. 그것 때문에 저에게 항상 미안해하시면서 늘 돈을 주셨어요. 저 또한 돈을 많이 요구했구요.

T : 누님들의 결혼 생활이 전반적으로 어떠세요?

H : 제가 볼 때는 다들 행복해 보이시지 않으세요.

T : 누님들과 목사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H : 별 대화가 없었으니깐 요. 그래도 셋째 누님하고 가장 친했다고 볼 수 있죠.

T : 그럼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 내에서 누구하고 대화를 하셨어요?

H : 가정에서는 대화가 거의 없었죠. 부끄럽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집을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생활을 많이 했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더 그랬어요. 어차피 집에 있어도 사람이 없었으니깐 요.

T : 가족들과 함께 했던 기억은 있으세요?

H : 한 번 밖에 없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섬진강에 1박으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누님들하고 갔고요 부모님들하고 간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래서 늘 아내에게 '나는 정말 가정적으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술 주정하시던 아버님의 모습에 한이 맺혀서 술을 안 마시고 가정적으로 사는 것이 꿈이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깐 죽고 싶더라구요. 제가 아내에게 주먹질하고 그러는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이 더 고통스러운 거죠. 다 무너졌다는 생각에 자포자기를 많이 했어요.

T : 사모님을 그 전에 폭행하셨어요?

H : 몇 번했죠. 신혼 초에 2번 정도.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집에서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 본적이 없는데 우리 사모는 전혀 달랐어요. 우리 사모는 당신이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식구들이 내가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고 하니깐 이러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어머니한테도 차비 외에는 돈도 주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깐 저는 더 분이 난 것이죠. '네가 왜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를 마음대로 조정 하냐는 거죠. 그러니깐 싸움이 일어나고요(부인이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했던 시도된 해결방식에 대하여 남편은 부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 저희 집에서 저에겐 아무 일도 안 시키는데 사모는 저보고 하라고 하면서 이런 것도 안 하면 남자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집안에서 전기 가는 것이라든지 망치질하는 것을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사모는 이런 것은 당신이 하라고 화를 내죠. 그러면 저는 '내가 왜 하나? 왜 나를 자꾸 간섭을 하나?'고 하면서 많이 싸웠죠(부인이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방식이 남편을 화나게 만들었고, 그러한 남편의 모습이 부인에게는 남편이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즉, 여기서도 두 사람간의 문제 해결방식이 역기능적으로 시도해 온 해결방식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T : 목사님, 지금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어떠세요?

H : 그 동안 어머니의 속을 많이 썩었다는 생각 때문에 안쓰럽고 안됐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머니한테 전화만 오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T : 무엇 때문에 짜증이 나세요? 최근에 떠오르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H : 예를 들어 주택은행 같은데 가서 돈을 대출 받는 것조차도 '너는 못하니깐 네 아내랑 같이 가서 해라' 하시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화가 나는 거죠. 아직도 '당신은 나를 못 믿나' 하는 생각 때문에 화를 많이 냈죠.

T : 그때 표현을 어떻게 하셨어요?

H :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깐 신경 쓰지 말라' 고 이야기하죠. 요즘은 제가 화를 내니깐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더 화가 나요.

T : 어머니는 한 달에 몇 번이나 만나세요?

H :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깐 매주 한 번씩 와요. 그러면 저는 '당신 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하죠. 저는 어머니가 오시면 간섭하시니깐 그것이 싫고 또 애를 업고 오시면서 오실 때마다 무거운 김치를 들고 오시니깐 안쓰럽기도 하고 해서 오지 말라고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요. '앞으로 사모한테 담가 먹으라고 할 테니까 김치도 담가오지 말고 나한테 그만 좀 신경 써라' 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내가 왜 이랬을까? 좀더 자상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하면서 자책하게 되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가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학교로 찾아와서 정학과 퇴학당하게 하지 않게 처리해 달라고 선생님들한테 사정했어요. 오죽했으면 선생님들이 저희 어머니를 '눈물의 어머니'라고 부르시면서 '너는 어머니 아니었으면 벌써 퇴학당했다'라고 자주 말씀 하셨어요. 늘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머니께서 학교에 찾아 와서 선생님들한테 빌고, 싸우다가 경찰서 가면 경찰서 와서 형사들한테 빌고 하는 모습이 많았죠. 그때도 늘 어머니한테 나 좀 내버려두라고 했어요.

T : 사사건건 간섭하셨나 보네요.

H : 어머니는 사랑의 표현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저는 그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자신에게 너무 많은 간섭을 한 것에 대한 반항으로 중학교 3학년 때 가출을 한 경험이 있고, 지금까지도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즉, 어머니와 클라이언트간의 미분화(undifferentiation)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 3 회 (2001년 6월 11일)

T : 지난주에 사모님하고의 관계는 어땠어요?

H : 사이는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3일간 사모가 어디를 갔었는데 성욕을 참지 못하고 한 번 비디오를 봤어요. 최근에는 성적인 욕구가 막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집사람이 와서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니깐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성에 집착하게 되었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깐 중학교 때부터 문란한 생활을 했던 것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T : 중학교 때부터 문란한 생활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H : 중학교 때 탈선을 시작하면서 성 관계도 갖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와서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제가 사모를 사랑하지 못했던 이유가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좋아하고 육체적으로 만족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결혼하고도 잊지 못하고 마음 한쪽에 둔 것 같아요.

T :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모님한테 불만족스러우셨을 것 아닌가요?

H : 사모와 관계를 갖는 것이 즐겁다는 생각이 없었으니깐요. 그 여자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T : 어느 정도 관계였어요?

H : 한 3년 정도 동거 비슷하게 생활했죠. 그런데 집안에서 절대 반대하고 주위 목사님들도 '당신은 주의 길을 갈 사람이니깐 그 여자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 때문에 헤어졌죠.

T : 어떤 여자였는데요?

H : 술집도 좀 다니고 술, 담배도 하고 하니깐 사모로써 부적합하다는 그런 거죠. 나중에 밝혀진 것이지만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동거를 하고 있었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거기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깐 그 이야기를 듣고도 쉽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아마 어머니한테 느끼지 못한 것을 그 애한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T : 사모님도 그것을 아세요?

H : 자세한 것은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런 이야기는 했죠.

T : 목사님의 과거 성적 경험에 대해서 대충 다 아세요?

H : 제가 결혼할 때 다 이야기했죠. 차마 숨기고 결혼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나 신앙 생활하기 전에 이런 문란한 생활을 했는데 이해할 수 있으면 결혼하자'라고 했지요. 사모가 저보다 연상이고 또 전혀 애정도 없이 단지 주의 길을 가야된다는 그런 것 하나 때문

에 결혼을 하다보니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모와 저는 사권 지 3주 만에 약혼하고 3개월만에 결혼하게 되었죠. 서로가 전혀 사권의 기간도 없었고 서로에 대해 알 시간이 없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가족생활주기 중 신혼부부단계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 및 역할 재조정을 협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입으로는 아니지만 마음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당신이 엮어주셨는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는 원망도 했죠. 상담하면서 내가 왜 아내한테 정을 붙이지 못하고 했나 생각해 보니깐 아까 말한 여자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T : 사모님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인가요?

H : 그렇죠. 가정에서 내조하는 것을 보면 참 잘 하는데 여자로서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으니깐 고통스럽더라고요.

T : 뭐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H : 외모도 그렇고, 성적인 것도 예전부터 사모가 저를 만족시켜주려고 노력은 했는데 저는 만족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부부관계가 좋아지면서 약40분 정도 관계를 갖고 하니깐 조금씩 서로에 대해 만족을 느끼죠(성적인 관계에서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T : 그러면 그 전까지는 사모님하고 부부관계가 안 좋은 편이셨습니까?

H : 최악이라고 볼 수 있었죠.

T : 이혼까지 생각했었습니까?

H : 2번 정도 이혼하려고 법원까지 가고 했었는데 제가 다시 취소하고 용서를 빌며 다시 살아보자고 하면서 몇 번 그랬어요.

T : 자녀 문제는 없으세요?

H :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깐 신혼 초에 사모가 6개월 정도 기도원에서 지내면서 떨어져 지냈죠. 그때 큰아들을 저와 어머니가 키웠는데 그것 때문인지 저는 큰 아들을 더 좋아하고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 애 엄마는 작은애한테 집착을 많이 하죠.

T : 아빠랑 큰아이하고 밀착관계에 있고, 엄마랑 작은애랑 밀착관계에 있네요. 그러면 큰애와 엄마관계는 어때요?

H : 늘 떨어져 있었으니깐 큰애가 엄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막내 누님이 애를 키웠는데 늘 고모한테 엄마라고 하고 사모한테는 엄마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에 들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하죠.

T : 둘째하고 목사님하고의 관계는 어떠세요?

H : 그 동안 저를 많이 무서워하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엄마보다는 저를 많이 생각

하더라구요.

T : 둘째는 왜 아빠를 무서워했나요?

H : 막내는 우리가 데리고 살았으니깐 엄마랑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막내 낳았을 때도 큰애는 막내 누님 댁에서 할머니가 키우고, 막내는 저랑 사모랑 함께 살면서 키웠죠. 그러니깐 약 1년 정도 큰애만 떨어져 있었죠. 그리고 애 엄마가 심장수술까지 해서 병원생활도 하고 ...

T : 심장수술은 왜요?

H : 고등학교 때 심장수술을 했었는데 애기 낳고, 또 이것저것 신경 쓰고 하니깐 수술했던 것이 악화되었나 봐요.

T : 결혼하시고 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봐요?

H : 맨 날 싸우면서 마지못해 살았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사모에게 제발 살아 달라고 달래면서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그저께 사모랑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사모가 '난 당시에 대한 섭섭함보다는 비록 어머님이 나한테 잘해주시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섭섭함과 왜 아들을 그렇게 기르셨을까? 하는 원망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상당으로 인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부인이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였다).

T : 어머니가 목사님을 어떻게 기르셨는데요?

H : 어머니가 일 나가시면서 늘 돈으로 해결하셨죠. 돈을 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난 늘 그 돈을 가지고 친구들과하고 즐기고 계속 방황을 하게 됐죠. 어차피 집에 있어도 아무도 없어서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 해 본 것이 없어요. 다 커서까지도 늘 어머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심지어 형광등 가는 것도 어머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결혼해서도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제는 아무 것도 못하니깐 삼촌을 부르든지 아니면 전파사에서 사람을 불러와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사모가 놀래는 거죠.

T : 어머니하고도 피곤한 관계를 가지셨을 것 아닌가요?

H : 그렇죠.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다 싫은 거죠.

T : 지금 어머니하고의 관계는 어떠세요?

H : '좀 안쓰럽고 불쌍하시다' 하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보면은 화가 나요. 어제도 모처럼 오셨는데 마음속으로는 '어머니 사랑해요. 저랑 여행이나 다녀와요'라고 하고 싶었는데 이게 말로 만나오고 오히려 어머니가 힘들게 무엇을 들고 오는 모습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T : 표현은 어떻게 하셨어요?

H : 말 안하고 가만히 있었죠.

T : 목사님은 무엇 때문에 결혼 하셨나요?

H : 주의 길을 가는데 있어서 신앙 하나만 보고 결혼 한 거죠. 사모가 믿음이 좋고 또 집에서 몰아 부치고 하니깐 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배필인데 결혼을 안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앞길이 다 막혀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지요.

T : 저는 목사님이 어머니로부터 떨어지지 못했고, 또한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목사님은 누구한테 끌려 다니는 삶이 아니었나 하는 거예요.

H : 제가 의지력이 많이 약하죠. 그래서 결혼해서도 사모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T :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은 어머니하고의 관계에서 분리가 안됐습니다. 또한 목사님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머니께 걸려 있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H :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독립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힘들어도 전화도 안하고 어머니가 물질을 주면 사모한테도 받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어머니는 '네가 무엇을 하나'며 화를 내세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또 마음이 상하고... 사실 결혼 초기에 분가해 살면서 그나마 전기 만지는 것도 스스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상 쉬운 것이지만 이런 것을 하는 가운데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오면서 기쁨이 생기더라구요. 그 전에는 어머니가 '늘 너는 못한다'라는 인식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했죠.(어머니의 미분화로 인하여 자녀를 과잉보호하였고, 자녀와 공생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다).

H : 어머니는 저에게 굉장히 집착이 강하십니다.

T : 어머니는 사랑한답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결국 아들을 애처럼 길러 왔다는 것입니다.

H : 그러니깐 결혼해서도 나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없고 '아내가 나를 위해서 다 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아내를 많이 의존했죠.

제 4 회 (2001년 6월 18일)

T : 목사님, 지난주에는 사모님하고의 관계에서 어떠셨습니까?

H : 지난주에 처음으로 저희 가족이 2박 3일 동해로 여행 다녀왔습니다(상담 이후에 가족여행을 다녀오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T : 마음이 어떠셨어요?

H : 여행 간 것도 간 것이지만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가 대화할 수 있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포르노를 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그것을 아내에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그렇게 보고 싶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보라'고 하면서 먼저 성 관계를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렇게 관계를 맺고 나니깐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여기서 클라이언트가 남편이 포르노를 보고 싶어 하는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였고, 부인은 그러한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과 성관계를 시도함으로써 남편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 보인다. 즉, 이전까지 시도해 왔던 역기능적인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행동의 변화로 인하여 두 사람간의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T : 목사님은 상담 후부터 사모님하고 성 관계를 갖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포르노에 신경 쓰이는 강도도 줄어드셨습니까?

H : 아직도 집착을 하기는 하지만 아내랑 관계를 가졌을 때는 많이 안정이 되지요.

T : 저랑 상담하신 지가 3주정도 되었는데요 포르노 보시는데 있어서 횟수나 시간에 차이가 있으십니까? 지금도 1주일에 2번 정도 보세요?

H : 아닙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아내랑 관계를 가짐으로써 많이 안정이 돼서 한 번도 안 봤죠(클라이언트가 부인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포르노를 보는 횟수가 엄청나게 줄었다는 것이 보인다).

T : 목사님 어머니하고 사모님하고의 관계는 어떠세요?

H : 아내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었으니깐 이제 말하는데 사실 어머니께서 잘해주시기는 하지만 당신이 어디 나가거나 하면 늘 전화해서 일일이 물어 보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참 힘들었다' 라구요. 그리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당신한테 하는 것도 있지만 당신을 이렇게 키우신 것에 대해 어머님께 굉장히 화가 많이 났고 원망스러웠다' 라구요. 더욱이 저희 집에 시집와서 나한테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죠(부인이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와 남편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남편에게 솔직하게 대화를 하기 시작하였다).

T : 어떤 식으로 대하시는데요?

H : 제가 한 번 화를 내면 무조건 다 들어주시죠. 누님들도 제가 잘못 될까봐 잘 호응해 주시고요.

T : 그러면 지금도 사모님하고 어머님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불편 하겠네요?

H : 우리 사모는 어머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경제적으로 어머니한테 의존하니깐 요. 그리고 누님들한테도 순종하는 편이죠. 특히 큰 누님한테

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큰 누님께서 동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하시면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셨죠. 너무 그러다 보니깐 때로는 '친정 집이 지겹다' 라고 하셨죠.

T : 지나친 역할을 하다보면 결국 소진 상태에 들어와요. 결국에는 어머니나 큰누님은 자신의 역할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역할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원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지요.

H :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깐 저는 무의식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즐겼던 것 같아요. 무엇을 갖고 싶거나 관심을 받고 싶을 때 가출하고 돌아오면 갖고 싶은 것과 관심이 주어지고 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T : 그것이 뭐냐면 파워 즉 힘이 없는 자녀들이 증상으로 부모들을 통제하는 것이예요. 어떤 애들은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목사님은 가출이라는 증상을 가지고 그 가족을 통제했던 것이죠. 그것을 초보완적 관계라고 해요. 목사님이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딸 다섯 가운데서 나온 아들이라는 위치에서 오는 힘으로 어머니하고 밀착관계로 들어갔던 것이죠. 따라서 어머니는 나름대로 힘든 상황에서 아들이 사고를 치면 어머니의 에너지를 아들한테 쏟았고, 아들은 그러한 어머니의 에너지가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지겨운 거예요.

H :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어머니한테 기대하면서도 저를 제발 간섭하지 말고 나도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깐 두시고 그만 집착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T : 그러니깐 목사님이 2가지가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엄마, 나 좀 보면서 애정을 달라'는 메시지와 애정을 주는 것이 지나치니깐 '나 좀 내버려 두라'는 2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나가지 않았냐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냥 놔두면 더 불안해요. 아들이 또 사고 칠 것 같으니깐요. 어머니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아들한테 계속 신경을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은 더 미쳐버리죠.

H : 사모가 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모르지만 우리가 분가해서 떨어져 살 때 심지어 반찬을 뭐 먹었냐? 하는 것까지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그런 것이 싫지만 어머니가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한테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화해서 그런 것을 일일이 이야기하니깐 감시당하는 것 같아 아내에 대해서 더 분노했던 것 같아요(시어머니의 미분화로 인하여 아들을 분리하지 못하는 가운데 시어머니가 아들 부부에게 경제적인 지원으로 인하여 며느리를 통하여 아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알고자 하였고, 며느리는 본의 아니게 시어머니와 밀착관계를 가진 것으로 남편은 오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인의 모습으로 인하여 남편은 부인을 더욱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 여기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시도된 해결

방식과 남편과 부부의 시도된 해결방식을 변화시키고 한편, 아들 부부하위체계의 강화로 인하여 시어머니와의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 할 필요가 있다).

T : 사모님도 괴롭지만 어머님과 한통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목사님께서서는 그러한 아내가 더 싫었겠지요.

H : 그리고 어머니와 아내가 달랐던 것은 아내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해줬는데 아내는 응해주지 않는 그런 반대의 스타일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남자는 힘들어도 지갑에 돈이 있어야 한다'고 몇 만원씩 주고 했는데 우리 아내는 '당신은 돈이 많으면 다른데 가니깐 안 된다'고 차비만 주니깐 저는 거기서 더 소리지르고 싸웠죠(부인은 남편이 항상 돈을 낭비한다라고 생각하여,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돈을 주었던 방식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남편을 대하였는데, 이러한 부인의 대응방식이 남편을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다. 돈을 주는 방식에서도 남편의 낭비하는 습관을 고치기 위한 부인의 방식과 그 방식에 대하여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부인과 싸우는 방식이 지금까지 두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 온 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지금까지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T :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H : 그 동안은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의존했었는데요 이번에 교회 정리하면 생기는 돈으로 카드 빚도 갚고 아내가 배우는 것도 있으니깐 그것으로 좀 해결해 보려구요. 저도 예전에는 못했는데 이제는 세상 적인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 :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독립을 하시려면 목사님이 스스로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H : 저도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괴로워요. 이제는 가족들에게 짐을 지고 싶지 않는 그런 것이 힘들어요. 저보다 아내가 더 어머니와 누님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부터 제가 물질적인 이야기를 힘들어도 안 해요.

제 5 회(2001년 6월 27일)

T : 목사님이 포르노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W : 제가 책장 정리를 하다 보니깐 CD 케이스는 있는데 CD는 없더라고요. 제가 몇 일을 모른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보고 나서 또 볼까봐 죄책감에 다 부러뜨려 버렸대요. 제 댄에는 돈도 없는데 그것들을 사서 자꾸 부러뜨리니깐 화가 나서 '사서 부러뜨릴 것이면 하나 사서 숨겨두고 나 없을 때 두고두고 보라'고 했어요.

T : 목사님이 포르노를 보는 빈도는 상담하고 난 후에 달라졌나요?

W : 그 전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볼 때 목사님이 상담하기 전보다는 포르노 보는 회수가 많이 줄어 든 것 같아요.

T : 사모님하고의 성 관계는요?

W : 상담하기 전보다는 더 낮죠.

T : 저는 목사님의 문제가 포르노라는 증상 하나 때문이 아니고 저변에 엄마하고 분화가 안됐다고 생각해요.

W :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요. 1년 정도 함께 살았어요. 그 집이 큰 누님 집 이었는데 아래층은 삼촌네가 살고, 위층은 막내 시누이네가 살았거든요. 결혼 초에 한달 동안 그냥 어떤가 지켜봤어요. 1달 동안 살면서 보니깐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문제더라고요. 목사님이 신학교를 갈 때 돈을 몇 만원씩 주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은 그것을 나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날 주면 그날 다 쓰고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못 견디는 거죠. 가정 형편은 뻘한테 그것을 주는 어머니나 당당하게 받아 가는 아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목인하는 친척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용돈을 주면 제가 중간에서 많이 가로 가로챘어요. 그렇다고 제가 가진 것은 아니고요. 다시 어머니 드리면서 '남편이 신학생이고 하니깐 딱 점심 값과 교통비, 그리고 여유 돈 1~2천 원만 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하고 많이 싸웠죠.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는 형광등이 나갔는데 위험하다고 못 갈게 하신 분이세요. 대신 아래층에 사는 삼촌을 불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젊은 사람은 뻘하게 눕혀 놓고 나이든 동생을 데리고 와서 형광등을 갈라'고 하니깐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언성은 높이지 않았지만 신경전으로 30분 정도 싸웠죠. 결국은 목사님이 같았는데도 같고 나서 자신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좋았나 봐요. 아무튼 그 때부터 싸움이 시작되고 제가 악역을 자처했죠. 어머니께서는 '더럽고 치사하게 뭐 하러 남편을 시키냐? 맘 편하게 네가 해라'하시는데 그래도 '못한다'고 했어요. 한 번은 화분갈이를 시켰는데 2시간정도 신경전을 벌이면서 하더라고요. 하고 나선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내가 했어. 정말 고마워. 그리고 보면 나도 필요한 사람이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를 못 잊어요. 목사님은 '지금까지의 여자들은 자기한테 그랬던 사람이 없는데 내가 자기를 고치려고 한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겠죠. 목사님이 집어던지고 하면 무섭지만 그래도 내가 이번에 지면 나 역시 어머니이나 누나들처럼 휘어잡고 똑같이 취급할 것 같아 안 들어줬어요. 물론 들어 줄만한 일들은 처음부터 토를 안 달고 들어줬지만 안 되는 것은 온 집안을 뒤집어 봐도 안 들어줬어요. 그러니깐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리고 그래도 지금은 괜찮은 편인데요. 옛날에는 옷도 몇 십 만원 짜리 아니면 안 입었어요. 없는 살림에 어

머님은 빛을 내서라도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도 계절마다 구두부터 팬티까지요. 저는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결혼하기 전 어른들과 상전례를 할 때요 아래층에 사시는 삼촌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네가 1년 안에 도망가지 않으면 정말 잘 사는 것이네, 내 조카지만 정말 그런 사람이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까지 형편없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T : 그것이 그렇게 목사님을 화나게 만들었나 봐요. 사모님은 목사님이 저렇게 무능력하고 망가진 이유가 아들의 요구를 무작정 다 들어준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행동하신 거예요. 물론 목사님은 자기 어머니 방식도 싫었지만 극을 달리는 반대의 방식을 쓰는 부인의 방식도 싫었던 거예요. 그것이 소위 사모님과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시도된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도된 해결 방법이 부부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하고 아들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듯이 사모님과 남편과의 관계도 나쁘게 만드는 방법이지 않았냐 하는 것이죠(부인에게 남편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 온 해결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고 있다).

W : 저도 그것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 사람과 좋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과 감정적으로 좋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깐요.

T : 시어머니의 관계는 어떠세요?

W : 시댁에서 저희가 분가한 후에 하루에 5~6번 통화를 못하면 어머니는 불안해서 건디질 못하시는 거예요(시어머니의 미분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전화벨만 울리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일어났니? 학교 갔니?’ 하면서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전화 받는 것이 싫으니깐 목사님보고 어머니에게 먼저 전화를 하게 돼요.

제 6 회(2001년 7월 6일)

T : 목사님 요즘은 좀 어떠세요?

W : 지금까지 살면서 최고로 괜찮아졌어요. 이번 주부터 헬스를 시작했는데요 어려서 부터 뭘 배우러 가면 3일 이상 해본 것이 없다는데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체력적인 부분은 들쭉치고 정신적으로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데요. 목사님이 배우는 것에 대한 욕심이 많았는데 못했어요. 질문과 쓰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어디를 못 갔는데 어제는 처음으로 들어서 두란노 가서 세미나 들었어요.

T : 포르노 보는 것은 어떠세요?

W : 느닷없이 인터넷을 연결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뭘 배우고

있는 곳에 전화를 해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아서 하고 책임도 본인이 지라'고 했어요. 해놓고 그날은 저를 옆에 앉혀 놓고 인터넷을 하는데 눈동자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바라 대신 보는 횡수를 결정하라'고 했어요. 제가 옆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으니깐 불안하긴 하면서도 몇 시간을 보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한 두 편이나 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4~5시간 가까이 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아무 소리도 안하고 지나가고 다음날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래도 한 두 편보고 말 줄 알았는데 이것은 좀 심하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그 다음날 일시정지를 시키더라고요.

T : 두 분 관계는 어떠세요?

W : 대화가 많아졌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책도 함께 보면서 책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예전에는 화가 나면 말을 안 했는데요. 이제는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는 화가 났다' 라고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요.(예전의 의사소통 방식은 '화가 나면 말을 안 했는데' 이제는 I-message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를 하게 됨으로써 대화가 많아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그 전의 역기능적인 시도된 해결방식에서 이제는 기능적이고 효과적인 새로운 해결방식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

T : 포르노에 대해서 절제가 안 되는 것은 변화가 없어요?

W :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눌러 놓은 것 때문에 호기심으로 많이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봐도 '내가 왜 이럴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인은 5남매 중 셋째였으며, 아버지는 중학교 때 돌아가셨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부인은 가족들이 자신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그냥 방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족과는 거의 대화가 없이 지냈으며, 어머니에 대해서는 자신을 챙겨주지 않은데서 오는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경제적인 일을 도맡아 하였고, 부인은 집안 일을 도맡아 하는 과도한 역할기능을 하게되었다. 또한 심부름 할 일이 있으면, 어머니는 다른 자녀들은 시키지 않고 부인만을 시킴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T : 그러면 가족 내에서 자라실 때 대화할 상대가 없었다는 것인가요?

W : 그렇죠. 대화할 상대도 없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체력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언니, 오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그렇게 시키셨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죠.

T : 사람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에 대한 각본(script)이라는 것이 있어. 사모님의 각본이라는 것은 자식이 다섯 명이지만 자신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안 일을 자신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안 일을 함으로써 엄마 밑에서 살아 남을 수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사모님이 살아남기 위한 각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모님이 가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모를 수도 있고 살아남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미리 알아서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누적이 되면 소진 상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목사님과과의 관계에서도 목사님이 미흡한 역할을 하니깐 과도한 역할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시어머나가 했던 행동과 반대의 행동을 하지만 역할은 어떤 면에서 유사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W : 그런 것이 강한 모습으로 들어 나는 것이죠. 내 안에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것 같다’고만 느껴져요. ‘저 사람이 제대로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되질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나를 누르니깐 거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고 저는 또 그런 모습에서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현재 부부의 문제를 남편으로 인하여 생겼더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말과 행동이 거칠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았다. 그러나, 부인의 거친 말과 행동이 남편을 힘들게 하는 점도 있다. 즉, 여기서도 두 사람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기능적으로 시도된 해결방식을 볼 수 있다). 내가 봐도 나를 여자라기보다는 군인같이 느껴지니깐 싫은 것이죠.

T : 지금 경제원은 어떻게 되세요?

W : 없어요. 어머니가 매달 주시는 돈과 현금 들어오는 것이 얼마 안되죠. 그런데 저를 더 화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어려운 것도 좋은데 빚을 진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가족이 선교 현금을 매달 하기로 했어요. 지금 저희 가정 형편을 보면 천원 정도도 충분한데 목사님은 카드로 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아서 선교 현금을 해요. 그러면 저는 미치겠어요.

제 7 회(2001년 7월 11일)

T : 사모님하고의 관계는 어떠세요?

H : 계속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T : 사모님께서 지난번에 오셔서 목사님이 술 드시고 집에도 안 들어오셨다고 하시더

균요. 방황하셨나봐요?

H : 네, 술을 몇 년만에 처음 먹었어요. 술집에 가서 혼자 먹다가 새벽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죄책감에 아내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했지요.

T : 뭐가 피로워서 술을 드시게 되었습니까?

H : 사실, 먹으려고 간 것은 아닌데요 답답하니깐 갑자기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먹고 싶어도 꼭 참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양주 한 병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한 번 먹었으면 계속 먹고 싶었을 것인데 이번엔 ‘어? 별 것 아니네’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먹고 싶은 마음도 안 들었어요. 어느 정도는 술에 대해서 자유로워 지더라구요.

T : 지금 사모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은 감당하지도 못하는데 카드 빚을 쓰신다는 거예요.

H : 네, 교회 하면서 좀 더 많이 쓰게 되었죠.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제 자신이 스스로 쓰는 것을 감당을 못 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아내한테 카드를 쥐 버렸어요.

T : 목사님께서서는 사모님과 상의를 하시면서 스스로 가장으로써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H :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께 ‘제가 목회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니면 현재로써는 더 이상 어머니께 의지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하니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교회가 정리되면 돈의 액수를 떠나 돈을 번다는 목적 보다는 내 자신에 대한 인내심을 기르고 경험도 쌓기 위해 세상일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죠. 누님들도 내가 지금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가 그림 그렇지. 지금까지 한 가지 제대로 한 것이 있냐?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어도 도와줬는데 이럴 수 있냐?’고 할 것입니다.

T : 목사님은 그것이 견디기 힘들시겠죠.

현재 클라이언트는 상담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에 대한 흔들림과 변화에 대한 저항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술을 마시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자신의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두고 피로워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로움은 목회자로서의 길을 포기했을 때, 어머니를 비롯한 누나들의 실망감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있다.

제 8 회 (2001년 7월 18일)

T : 두 분의 관계는 어떠세요?

W : 좋아요. 지금은 대화도 되고 감정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 지금 둘 다 똑같이 힘들어도 나도 힘들지만 네가 힘든 것도 인정한다는 것이 분위기 면에서도 그렇고 목소리에서도 많이 느껴지고요(부부는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서로를 인정해 주고 있고, 이러한 인정이 대화에서 느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데서 연유된다). 그제 같은 경우에 제한적이고 해서 애들을 시댁에 데려다 주고 왔어요. 데려다 주고 오는데 10시가 조금 넘더라구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데 중간 중간에 목사님이 '힘들어도 잘 갔다 오라'고 지원을 해주셔서 힘은 들었지만 편안하고 기분 좋게 갔다 왔어요(남편은 부인에게 새로운 표현방법을 사용하여 부인의 감정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어제 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로 해서 저는 일 때문에 목사님만 혼자 가시게 되었지요. 저는 그 전날 목사님이 전화로 지원 사격 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들이 괜히 고맙고 미안해서 제가 목사님께 전화해서 '내가 역으로 나갈까? 어디로 나갈까?' 그런데도 다른 때 같았으면 '됐어' 아니면 '나와'라든가 그랬을 텐데 '힘드는데 왜 나와? 내가 데리고 들어갈 텐데' 하는 거예요(여기서도 클라이언트는 과거에 사용했던 말의 표현방식과는 다른 부인을 배려하는 표현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인 또한 그러한 남편의 따뜻한 표현과 배려로 인하여 남편에게 대하는 대응방식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표현방식으로 인하여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H : 예전에는 뭘 해줘도 마음에서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마음으로 되더라구요.

T : 그런 변화가 무엇 때문에 온 것 같아요?

H : 저는 최근에 와서 이상하죠. '영성 생활은 예전보다 못하는데 왜 이렇게 변할 수 있나' 를 생각해 봐요. 그리고 요즘에는 자신감이 생기고 막연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좁혀져 오는 것 같아요.

W : 그전에는 목회 하는 것이나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신이 청소년기에 겪었던 아픔을 바탕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니깐 그런 쪽 일을 하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H : 예전에는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하지 않고 방황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겠다고 늘 말은 했지만 사실 엄두도 안 나고 자신도 없었어

요. 그리고 뭘 배우는데 있어서도 항상 두려웠어요. 근데 요즘에 운동을 하면서 뭘 느끼냐면, 제가 운동을 처음 하는 것이라서 그런지 못하겠더라구요. 제가 못하니깐 선생님이랑 아줌마들이 막 웃어요. 웃는데 나는 옛날 생각이 나는 것이예요. '저것들이 나를 무시하나?' 그러니깐 하기가 싫었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체육관에 안 간다고 그르던지 그 것은 아예 안 해버리든지 했을 텐데 제 자신에게서 이상한 발견을 했어요. '웃으려면 웃어라. 아줌마 그러려면 그래요' 하면서 비록 얼굴이 빨개졌지만 계속 했어요. 하다 보니깐 3개도 되고 4개도 되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느끼냐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클라이언트는 예전에 비하여 현재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W : 그전에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느낌 등에 참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T : 아이들은 어때요?

W : 요즘 상담하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대화하는 방식을 자주 바꾸는데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화가 나도 위축돼서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애들이 당당하게 말을 해요.

H : 제가 어제 막내 아이한테 놀랜 것이 뭐냐면 엄마한테 혼나고 혼자 막 울다가 갑자기 달려가더니 '엄마, 잘못했어요. 미안해요'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제가 교수님하고 상담하면서 옛날 같았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였겠지만 '너희들 아빠한테 화난 것 있으면 이야기해라. 그래야 아빠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더니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더라구요.

T : 지금 어머니하고의 관계는 어떠세요?

W : 주말마다 어머니가 오시는데요 오실 때마다 등에는 애를 업고 손에는 바리바리 싸들고 오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속상한 정도를 넘어서 막 화가 나고 싫죠.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안 먹어도 되니깐 가져오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맨 처음에는 많이 섭섭해 하시더라구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시고 또, 당신이 힘든 것도 있고 '그래 너희들도 어디 한 번 서봐라' 하는 기대감을 은연중에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그래도 하루에 전화 몇 통을 할 텐데 이제는 며칠에 한 번 어쩔 때는 1주일에 한 번 토요일날 '나, 식당 일이 바빠서 내일 못 간다'라고 말씀하세요(부인이 시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였고, 그러한 며느리의 표현에 섭섭한 감정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름대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어머니는 현재 자신의 일이 바빠짐에 따라, 과거에 아들 내외에게 하루에 5~6통의 전화

(상당 5회 내용 참조)를 하였건만, 지금은 며칠에 한번 씩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H : 저는 예전부터 늘 아내에게 ‘어머니가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어머니 못 오시게 멀리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자’ 저희가 이곳으로 이사 와서는 어머니가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오잖아요. 어머니는 제가 가족들 근처에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머니가 절대로 못 오시게 멀리 경상도나 전라도로 가자고 했어요.

T : 목사님은 지금 어머니한테 지쳐서 거리감을 두고 있어요. 공간적으로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도 거리감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목사님의 저변에는 어머니하고 거리감을 두는데서 오는 편안함보다는 일단 부딪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변에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W : 그전에는 그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잠깐이라도 어머님이나 시누이들 이야기를 하면 막 화를 냈죠. 그런데 상담하기 한 주전에 어머님이나 시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차분히 이야기를 듣더라구요. 8년 만에 처음이었죠(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원가족과 분화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변화는 부부가 서로에게 의사 소통하는 방식이 바뀌었음으로 인하여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그 동안은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어머님이나 누님들에게 빚지고 있는 것만 같아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T : 지금 포르노 보는 것은 어떠세요?

H : 지금은 한 번도 안 봤습니다.

W : 말하지 않아도 제가 느낄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2주 전에는 목사님이 초조해하고 불안하면서 정신없는 것이 느껴졌는데 요즘에는 못 느껴요.

H : 요즘은 운동하니깐 괜찮아요.

T :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자녀 문제를 좀 볼게요.

제 9 회 (2001년 7월 25일)

W : 얼마 전에 유치원 선생님과 큰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큰 아이는 집에서 손을 잘 빼는데, 선교원에서는 절대로 안 빼겠다고 하시면서 놀라셨어요. 큰 아이가 유치원에서 하는 것과 집에서 하는 것이 너무 극과 극을 달려요.

T : 여기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두 분의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엄마 아빠의 관계가 안 좋으면 애들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시다. 큰 아이는 그 증상이 손을 빼는 것

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두 아드님은 서로 자주 싸우나요?

W : 다른 애들에 비하면 안 싸우는 편인데 가끔 싸워요.

T : 그전에 목사님은 일찍 귀가 하셨어요?

H : 그냥 보통이에요. 집에 있을 때도 있었는데 애들하고는 안 놀았죠. 아마도 애들이 저희 부부의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W : 그 전에 목사님은 놀아주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요즘은 아빠를 많이 찾아요. 특히 둘째 같은 경우는 아빠가 없으면 아빠를 찾고 문도 열어 봐요. 그리고 요즘은 저녁 때마다 목사님이 애들 운동을 시켜주시거든요. 이불 다 깔아 놓고 윗몸 일으키기도 시켜주시고요. 애들이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아빠한테 장난을 걸고 매달리기도 하고요. 목사님은 정말로 엄청 변하셨죠. 오늘이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째인데요 어쩔 때는 정말 몸이 피곤한데도 그래도 저녁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세요. 목사님은 중간에서 요즘 중재 역할을 잘해주세요. 그런데요 목사님은 제가 큰 아이를 야단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큰 아이한테 소리치면 과민반응을 하시거든요.

T :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엄마가 소리를 지르고 야단치는 것이 싫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까지 딸한테 소리지르고 야단치는 것으로 인해 과거의 감정이 나오지 않나 하는 거예요.

W : 네, 제가 큰 아이한테 소리지르면 목사님은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다고 그래요.

T : 제가 애들을 보니까 밝고 건강한 것 같은데요.

W : 네, 애들이 이렇게 밝고 잘 놀고 하는데요.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큰 아이가 손을 빠는 부분이 좀 걸려요.

T :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어렸을 때 떨어졌을 때 오는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저변에는 엄마 아빠가 의사소통이 안되었고 다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과 사모님 관계가 계속 안정화되고 두 분이 대화를 오순도순 나누는 것을 보게 되면 애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이것은 서서히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이언트와 두 자녀간의 관계가 상담 이전에는 아빠가 자녀들과 놀아 주지 않고, 아이들이 아빠를 무서워하였는데, 상담 이후로는 아빠가 자녀와 함께 놀아주고 목욕도 시켜주는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 개선으로 인하여 부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고, 자녀들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부부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남편과 자녀들의 관계변화가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 10 회 (2001년 8월 14일)

T : 목사님, 사모님하고의 대화는 어떠세요?

W : 이제는 다투더라도 다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풀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참고 기다려 주면 제가 조금 풀리면 이야기를 하든지 그래요. 서로 배려를 하죠.

H : 아직도 제가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서로 다투는 가운데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표정과 느낌이 자꾸 읽혀지니깐 그 자리에서 웃어주길 바라고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래요. 그래야 제 마음에 안도감이 생기니깐요.

W : 많이 변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화가 났을 때 제 표정은 그대로 나오니깐 목사님이 못 견디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한 번 언성이 높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 때 솔직한 감정을 울먹이면서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그럴 때마다 나는 너무 미치겠고 속이 뒤집혀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더 이상 당신한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풀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요. 서로 이야기해서 풀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풀어주는 과정이니깐 조금씩 풀면서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데 목사님은 한꺼번에 다 꺼내놓고 한꺼번에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H : 내가 너무 급하게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분노하면서 싸울 태세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마음의 분노보다는 '아니구나'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들으면서 제 마음에 안도감을 갖고요.

W : 그런 부분을 보면 서로가 많이 바뀌어지는 모습들은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밑에 깔려 있는 이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걸려야 하니깐요.

T : 물론 지금은 그렇죠. 하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 신뢰감을 형성되기 시작하면 서서히 다른 이야기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하는 부부관계를 통해 아이들도 자신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W : 어쩔 때는 저희가 놀랄 때도 많아요. 그전에는 작은아이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안 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엄마, 저는 너무 슬퍼서 죽어 버리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죽고 싶니? 죽는 것이 무엇인줄 아니?'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소리지르고 때리니깐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심장 수술을 해서 그런지 가정생활 하는 것도 오후가 지나면 체력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 신경이 끈두

서고 그런 가운데 애들은 계속 칭얼거리고 남은 집안 일도 해야 되니깐 힘든 거죠.

T : 목사님께서서는 그와 같은 경우에 무엇을 하시는지요?

H : 애들 씻기는 것이나 방 청소하는 것 정도는 해요.

W : 근데 제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아침에 운동하러 가기 전에 집안 좀 치워줬으면 하거든요. 애들 다 보내놓고 목사님 운동하러 가면 저는 혼자 못 치우고 그냥 앉아 있어요.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목사님 을 때쯤 되면 서서히 치우죠. 처음에는 속으로 나쁜 XX라고 욕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운동하러 가는 것도 다행이다.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신 조금 지나면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주간에 더 체력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혹시… 혹시… 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임신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깐 저는 더 복잡한 것이죠. 애기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임신을 덜컥 하고….

H : 심장 수술 때문에 약을 먹고 있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내가 그러더라구요. “옛날에는 임신 자체가 싫었는데 이번에는 당신하고 나랑 사이가 좋아지고 하는 가운데 아이를 낳고 싶는데 낳 수 없는 상황이니깐 더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하더라구요.

W :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힘들어서 우울했던 것 같아요. ‘제가 현재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이를 낳으면 애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고 설사 영향이 없다고 해도 내가 과연 체력적으로 견딜 수 있을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아이를 안 낳고 지금 있는 아이들한테 더 잘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정말 낳고 싶다는 생각이 교차해요.

이 부부의 이전에 화를 푸는 방식은 남편은 그 자리에서 빨리 풀어야 하는 스타일이었고, 부인은 좀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화를 푸는 방식이었는데, 현재는 남편이 부인이 화를 푸는데 자기보다는 시간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차이의 인정과 더불어 부인은 화가 났을 때, 자신의 표정까지 빨리 변화시키기는 아직 힘들니 시간을 좀 기다려 달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남편은 부인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 지금 부인은 실수로 임신을 하였지만 아이의 출산에 대하여 기쁨과 더불어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부부가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의사소통 함으로써 두 사람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다. 현재 부인은 병원에서 부인의 심장병의 약물로 인하여 자녀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결과로 인하여 낙태수술을 받았고, 두 사람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는 중이다.

5. 결론

본 사례는 포르노에 중독된 목회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2001년 5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약 5개월간 10회 개인 심리치료와 부부치료를 한 사례이다. 남편은 신혼 초부터 부인과 대화가 안되었으며, 이러한 의사소통의 단절로 인하여 성 관계를 1년에 3~4차례 갖는 정도였다. 그러한 결과 남편은 성적인 불만족을 포르노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남편은 포르노 중독이 되었다.

남편은 포르노 중독자가 되기 전에는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목회자 되고 나면서 단주를 하였다. 목회자인 남편은 포르노 중독을 기도로서 해결하려고 10년 동안이나 노력하였으나, 오히려 포르노 중독은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되어, 부인이 본 치료사에게 의뢰를 하였다. 이러한 포르노 중독 이면에 남편은 어머니와 정서적으로 자아분화가 안되었으며,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간섭과 잔소리로 인하여 청소년기 때부터 문제아로 성장을 하였다.

치료자는 남편의 포르노 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MRI의 상호작용주의적 가족치료 모델, Murray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적용하였다. 치료자는 MRI모델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부부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역기능적으로 시도해왔던 해결방식을 발견하여 지금까지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하였다. 또한 Murray Bowen의 가족체계 이론을 적용하여 남편이 원가족, 특히 어머니와의 자아분화를 시도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부부는 10회의 부부치료를 통하여 남편은 포르노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이면에는 부부가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상담으로 인하여 부부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부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현재 부부는 상담 전에는 일년에 3~4번의 성교 횟수에서 지금은 일주일에 3~4번 정도의 성교를 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 부부에 대한 부부치료는 효과성을 보여주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박인철 역. 1995. 《변화》. 서울: 동문선.
Duncan, B. L., Solovey, A. D., & Rusk, G. S. 1992. *Changing the Rules: A Client-*

- directed Approach to Therap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Goldenberg, I., & Goldenberg, H. 2000. *Family Therapy: An Overview* (5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Friedman, E. H. 1991. Bowen theory and therapy. In A. S. Gurman, & D. P. Kniskern (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pp.134~170). New York: Brunner/Mazel.
- Harvey, D. M., & Bray, J. H. 1991. "An evaluation of an intergenerational theory of personal development: Family process determinants of psychological and health distres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4, 42~69.
- Lawson, D. M. "Integrated intergenerational family therapy." In D. M. Lawson., & F. F. Prevatt. *Casebook in Family Therapy* (pp.27~50). New York: Brooks/Cole.
- Nichols, M. P., & Schwartz, R. C. 2001.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 (4th). Boston: Allyn and Bacon.
- Papero, D. V. 1995. "Bowen family systems and marriage." In N. S. Jacobson, & A. S. Gurman (Eds.),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pp.11~30).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Schlanger, K., & Anger-Díaz, B. 1999. "The brief therapy approach of the Palo Alto Group." In D. M. Lawson., & F. F. Prevatt. *Casebook in Family Therapy* (pp.146~168). New York: Brooks/Cole.
- Shoham, V., Rohrbaugh, M., & Patterson, J. 1995. "Problem-and solutions-focused couple Therapies: The MRI and Milwaukee models." In N. S. Jacobson., & A. S. Gurman (Eds.),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pp.142~163).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Watzlawick, P., Weakland, J., & Fisch, R. 1974. *Change: Problems Formation and Problem Resolution*. New York: W. W. Norton.
- Weakland, J. H. 1993. "Conversation-but what kind?" In S. Gilligan., & R. Price (Eds.), *Therapeutic Conversations* (pp.136~145). New York: Norton.
- Weakland, J., Fisch, R., Watzlawick, P., & Bodin, A. M. 1974. "Brief therapy: focused problem resolution." *Family Process*, 13, 141~168.